

무형식학습,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연구 : 서비스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조 정 형(제1저자)

오산대학교 마케팅경영과 (조교수)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Informal Learn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Focusing on Service Major Undergraduate

Cho, Junghyong(First Author)

Department of Marketing Management, Osa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informal learn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for undergraduate majoring in services. To this end, we collected 300 responses from an online questionnaire and used 272 for the final analysis. The SPSS 22.0 and Amos 22.0 program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formal learning was found to have a partially posi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cond, it was shown tha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s a posi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 level. These results may contribute to raising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discriminatory education and management to enhance informal learn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t can also contribute

academically to broadening the scope of research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service field.

Keywords : Informal Learn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Service Major

접수일(2022년 01월 10일), 수정일(2022년 01월 31일), 게재확정일(2022년 01월 31일)

I. 서론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임과 동시에 사회로의 진출하기 위한 준비기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진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갖추기 위해 학습과 경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이 시기에 결정한 진로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삶의 방향이나 질을 결정하기도 하므로 개인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된다(Tolbert, 1980). 그러므로 대학생 시기는 진로 결정을 위한 사전 탐색활동과 준비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한희원과 문경숙, 2020). 이에 정부 정책에서도 대학생의 진로와 취업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요소로 주목해왔으며, 대학의 역할을 보다 강조해왔다(김지영, 2014; 김정혜, 2019).

그러나 정부와 대학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생들은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신윤미와 오미자, 2021). 2020년 10월 잡코리아가 4년제 대학생 2,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 진로 결정 현황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9%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진로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를 결정한 그룹보다 결정하지 못한 그룹의 스트레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 2020).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4년제 대졸자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른 통계에서는 대졸자를 대상으로 만약 다시 시간이 주어져 휴학생의 신분이 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리쿠르트타임즈, 2020). 통계결과를 종합하면 대학생들은 진로 결정을 위해 충분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진로개발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변수가 무형식학습이다. 무형식학습은 틀에 짜

여진 교육이 아닌 자발적인 학습의 개념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과 교류하거나 외부탐색을 통해 답을 찾는 과정으로 비구조적인 특징을 가진다(신주은과 오석영, 2018). 이러한 측면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체계적이고 학습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형식학습과 차이를 가지며, 정규교육 외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으로 볼 수 있다(오현석 등, 2006). 무형식학습의 형태로는 자기주도적 학습, 멘토링, 현장실습, 인턴십, 자격증 획득, 아르바이트, 동아리 활동, 경진대회참여, 정보탐색 등이 포함된다(오석영, 2011; 신주은과 오석영, 2018; 정현배 등, 2019). 무형식학습은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면서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의 효과가 형식학습보다 크게 나타난다(Marsick and Watkins, 2001; Marsick and Watkins, 1990). 또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업무지식의 70%가 무형식학습에 의해 습득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므로(Marsick and Watkins, 1990) 실제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형식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무형식학습 형태를 파악하고, 무형식학습을 이행함으로써 개인의 진로에 대한 심리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한 연구주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에 대한 심리상태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제시할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과업을 수행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Storme et al., 2019; Taylor and Betz, 1983),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신주은과 오석영, 2018; 오혜지, 2019; 최지은과 조용선, 2019). 또한, 진로결정수준의 선행요인으로 확인되고 있어(민소라 등, 2019; 백수진과 안성우, 2020; 한희원과 문경숙, 2020) 무형식학습과 진로결정수준 사이의 변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단일차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다수인데(성행남 등, 2021; 고영주와 김남석, 2020; 임민숙과 이상민, 202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정보수집, 계획수립, 자기평가, 목표설정 및 문제해결이라는 5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이므로 하위요인에 따른 차별적인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다차원으로 구성하고 각 요인이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서비스관련 전공학과와 재학생들은 입학 전에 진로를 결정하고, 실제 기업 입사 과정과 비슷한 방식의 면접 절차를 대학 입시 과정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전공학과 대비 전공에 대한 이해도와 진로 목표가 뚜렷한 경향이 있다(민소라 등, 2019). 이와 함께 진로가 고객 대면 서비스업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다수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무중심의 현장 학습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이순구, 2021). 이는 고객 접점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서비스업 형태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점점 직원이

무형식학습을 통해 행동을 발휘하여 서비스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수연과 이희수, 2020).

이상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관련 전공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형식학습,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서비스전공 대학생의 무형식학습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가?

둘째, 서비스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가?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에 따른 영향력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무형식학습

무형식학습은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지는 학습을 의미한다(Mocker & Spear, 1982). 처음 해당 개념을 제시한 Knowles(1950)는 학습 과정에서 경험과 자아성찰을 중요하게 바라보았다. 이후 연구에서는 경험학습이 발생하는 곳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특정 기관이나 조직보다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의 경험을 무형식학습의 범위로 보게 되었다(이윤하, 2010). 그러나 무형식학습은 기관과 조직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학습에 대한 통제권을 학습자가 보유했는가가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신은경, 2012).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교육개발원(2018)은 교수자의 정형화된 교육없이 학습자가 자발적 혹은 우연적 활동을 통해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학습하게 되는 경험을 무형식학습으로 정의하였다.

개념적 흐름을 통해 무형식학습은 정형화된 교육이 아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과 교류하거나 외부탐색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여 답을 찾는 과정으로 비정형화된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신주은과 오석영, 2018). 이러한 측면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체계적이고 학습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형식학습과 차이를 가지며, 정규교육 외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을 무형식학습으로 볼 수 있다(오현석 등, 2006). 무형식학습에 해당하는 활동으로는 자기주도적 학습, 멘토링, 현장실습, 인턴십, 자격증 획득, 아르바이트, 동아리 활동, 경진대회참여, 정보탐색 등이 있다(오석영, 2011; 신주은과 오석영, 2018; 정현배 등, 2019).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무형식학습은 주로 타인과의 학습, 자아성찰, 외부

탐색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홍유진, 2019; 심지영, 2016; 황영훈, 2017; Choi, 2009). 요소별로 살펴보면, 먼저 타인과의 학습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성찰은 문제해결을 위해 개인의 과거 경험과 시행착오를 되돌아보고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부탐색은 외부 전문가, 인터넷 검색, 서적 학습 등 외부 자원을 활용해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Choi, 2009; 김수연과 이희수, 2020).

다차원으로 구성된 무형식학습은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면서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의 효과가 형식학습보다 크게 나타난다(Marsick and Watkins, 2001; Marsick and Watkins, 1990). 또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업무지식의 70%가 무형식학습에 의해 습득되어(Marsick and Watkins, 1990) 실제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형식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과업을 수행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Storme et al., 2019; Taylor & Betz, 1983). 즉,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진로를 위해 스스로 준비하고 필요한 것을 성공적으로 성취해낼 수 있는 자신감 또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민소라와 홍성훈, 2019; 이한나 등, 201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효율적인 진로 결정을 내리는데 기여하는 핵심 활동을 중심으로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Crites, 1978). 연구마다 요인의 명칭에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Betz et al.(1996)이 구성한 정보수집, 계획수립, 자기평가, 목표설정, 문제해결로 하위요인을 분류하고 있다(백인선, 2018). 정보수집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조건을 탐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의미하며, 계획수립은 진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자기평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욕구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고, 목표설정은 진로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후회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은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Betz et al., 1996; 백인선, 2018).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분야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민소라 등, 2019; Lent et al., 2002). 구체적으로 진로 및 취업준비행동에 적극성을 높이고(정봉희와 오지현, 2021; 민소라 등, 2019),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윤정혜, 2015),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한다(박완성과 임영미, 2019).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선행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오랜시간 이루어졌으며, 이전 학습에 대한 경험을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보고 있다. 자기효능감 자체가 이전 학습의 경험에 대한 결과로써 개인이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과거 학습 경험이 주요 선행요인이 되는 것이다(Bandura, 1977; Lent and Brown, 2013). 이러한 맥락에서 무형식학습 역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 신주은과 오석영(2018)은 진로에 대한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 모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으나 무형식학습을 단일차원으로 구성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무형식학습을 다차원으로 구성한 박만희(2017)는 무형식학습의 하위요인인 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이 모두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줬으나, 이 연구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존재한다. 그러나 두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무형식학습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무형식학습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타인과의학습은 정보수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타인과의학습은 계획수립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타인과의학습은 자기평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타인과의학습은 목표설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타인과의학습은 문제해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6. 자기성찰은 정보수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7. 자기성찰은 계획수립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8. 자기성찰은 자기평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9. 자기성찰은 목표설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0. 자기성찰은 문제해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1. 외부탐색은 정보수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2. 외부탐색은 계획수립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3. 외부탐색은 자기평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4. 외부탐색은 목표설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5. 외부탐색은 문제해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은 전공이나 진로 선택에 대한 확신 정도(Wanberg and Muchinsky,

1992)로 확고한 진로결정과 미결정 간의 연속선 상에서 어느 한 단계로 볼 수 있다(민소라와 홍성흔, 2019). 즉, 진로에 대한 결정을 확고하게 내린 상태면 진로결정 단계, 진로결정을 분명하게 하지 못했거나 미루고 있는 상태라면 진로미결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수율, 2016).

2020년 10월 잡코리아가 실시한 대학생 진로 결정 현황 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의 46.9%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10명 중 8명이 진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을 볼 때(매일경제, 2020),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여기에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대학생의 진로 결정 문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윤일현, 2021).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나 정부는 대학생의 진로 문제를 돕기 위해 획일화된 진로교육을 제시하는 것보다 어떠한 요인이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는지 파악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이다(민소라 등, 2019).

이에 진로결정에 필요한 과업을 수행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주요 선행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민소라 등, 2019; 백수진과 안성우, 2020; 한희원과 문경숙, 2020; 성행남 등, 2021; 고영주와 김남석, 2020; 임민숙과 이상민, 202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고 지속하는데 중요한 동기요인으로(김수율, 2016), 스스로 진로와 취업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우수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가 존재한다(성행남 등, 2021). 최근에는 진로결정수준과 미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는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강한 선행요인으로 정리되고 있다(이수진 등, 2021; 이향림과 최용용, 2020).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은 높아지고, 미결정수준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단일차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다수인데(성행남 등, 2021; 고영주와 김남석, 2020; 임민숙과 이상민, 202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정보수집, 계획수립, 자기평가, 목표설정 및 문제해결이라는 5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이므로 하위요인에 따른 차별적인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다차원으로 구성하고 각 요인이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정보수집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계획수립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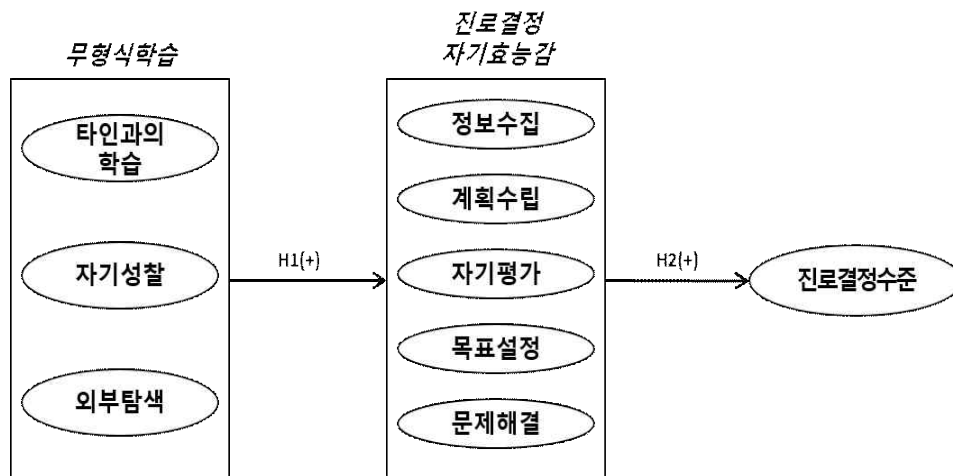
- H2-3. 자기평가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목표설정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5. 문제해결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무형식학습,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을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가설의 검증을 위해 무형식학습,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관련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조작적 정의와 측정문항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문항을 보완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표 1>. 측정척도는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하고 Likert 7점 척도(1점 = 전혀 아니다, 4점 = 보통이다, 7점 =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였다.

<표 1>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구성개념		조작적 정의	측정문항	선행 연구
무형식 학습	타인과의 학습		새로운 것을 습득하기 위해 선배나 동기와 자주 대화(오프라인, 온라인)를 나눔 관심있는 주제에 대하여 타인과 아이디어를 교환함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과 협력함	홍유진 (2019), 황영훈 (2017), Choi (2009)
	자기성찰		새로운 것을 습득해야 할 때, 과거의 학습경험을 되돌아 봄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시행착오나 실수를 다시 생각함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교육 경험을 다시 생각함	
	외부탐색		필요한 정보 및 지식 습득을 위해 다양한 채널(인터넷, 전문잡지, 관련 서적 등)을 활용함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자 노력함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 지침서 등을 참고하여 생각해봄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정보수집	진로결정에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고려하고 있는 직업의 평균 연봉 파악 가능 관심 있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음 진로 관련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음 향후 5년 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음 진로에서 요구되는 교과 과정들을 이수할 수 있음 취업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백인선 (2018), 이민옥 (2018)
	계획수립		개인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음 직업선택과 관련된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희생과 감수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음	
	자기평가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목록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음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적합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음 관심있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음	
	목표설정		선택한 전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바꿀 수 있음 선택한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바꿀 수 있음 다른 전공이나 진로 대안을 생각할 수 있음	
	문제해결		현재 진로를 결정한 상태이며, 그 결정에 편안함을 느낌 결정한 진로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지 알고 있음 현재 전공에 대한 편안함을 느낌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정도	현재 진로를 결정한 상태이며, 그 결정에 편안함을 느낌 결정한 진로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지 알고 있음 현재 전공에 대한 편안함을 느낌	민소라 등(2019), 이민옥 (2018)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조사대상은 서비스전공 대학생이며,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응답자를 선정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1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하였고 총 300부를 회수하였다. 이중 다수의 결측치가 존재하거나 모든 문항에 동일한 점수를 기재한 응답지 28부는 타당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72부의 응답지는 SPSS 22.0과 AMOS 22.0을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실증분석

4.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응답자 272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39.7%, 여성 60.3%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51.8%로 과반을 차지하였고, 교육기관은 2-3년제 대학이 98.5%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속학과는 보건 25.0%, 비서 22.8%, 항공 16.5%, 관광/레저 12.5%, 호텔/컨벤션 12.1%, 외식/조리 11.0%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진로로 생각하고 있는 직업과 관련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경험유무는 있음이 60.3%, 없음이 39.7%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108	39.7	학과	비서	62	22.8
	여성	164	60.3		항공	45	16.5
학년	1학년	141	51.8		호텔/컨벤션	33	12.1
	2학년	119	43.8		관광/레저	34	12.5
	3학년	6	2.2		외식/조리	30	11.0
	4학년	6	2.2		보건	68	25.0
교육기관	2-3년제 대학	268	98.5	직업관련	있음	164	60.3
유형	4년제 대학	4	1.5	경험유무	없음	108	39.7
합계						272	100.0

4.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측정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타당성 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성 분석은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통해 내적일관성 검토로 진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법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측정문항별 공통성 계수가 0.5 미만으로 나타나거나, 요인별 적재량이 0.5 미만으로 나타난 문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문항의 제거없이 9개 요인이 도출되었다<표 3>.

<표 3> 구성개념의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공통성	성분								
		1	2	3	4	5	6	7	8	9
자기성찰2	.899	.853	.120	.112	.093	.101	.188	.070	.255	.143
자기성찰3	.876	.831	.030	.132	.078	.089	.186	.080	.281	.182
자기성찰1	.858	.803	.145	.111	.156	.136	.224	.021	.266	.121
문제해결1	.836	.066	.872	.153	.093	.044	.095	.136	.076	.068
문제해결2	.846	.099	.865	.072	.096	.138	.150	.105	.033	.140
문제해결3	.822	.094	.793	.200	.114	.171	.183	.128	.106	.200
외부탐색1	.859	.057	.175	.870	.102	.050	.125	.134	.109	.097
외부탐색2	.824	.135	.099	.818	.127	.173	.126	.140	.090	.192
외부탐색3	.809	.158	.162	.776	.211	.226	.185	.112	.064	.096
정보수집1	.850	.071	.165	.150	.788	.177	.150	.280	.157	.133
정보수집3	.829	.176	.120	.159	.780	.183	.063	.288	.132	.113
정보수집2	.846	.113	.075	.189	.758	.210	.136	.277	.197	.200
계획수립2	.855	.137	.156	.099	.248	.789	.168	.235	.156	.101
계획수립1	.842	.083	.127	.156	.202	.789	.168	.233	.146	.164
계획수립3	.850	.156	.138	.272	.122	.749	.092	.285	.172	.194
목표설정3	.876	.207	.207	.108	.130	.128	.815	.114	.176	.192
목표설정1	.840	.246	.128	.223	.097	.162	.782	.066	.171	.177
목표설정2	.850	.214	.194	.179	.120	.139	.763	.159	.206	.227
타인학습1	.860	.007	.152	.145	.263	.186	.085	.823	.089	.143
타인학습2	.873	.098	.183	.161	.288	.245	.116	.785	.091	.153
타인학습3	.848	.089	.128	.150	.306	.350	.137	.738	.071	.131

자기평가3	.869	.283	.117	.068	.127	.131	.115	.148	.827	.133
자기평가2	.884	.304	.089	.108	.185	.175	.219	.071	.798	.136
자기평가1	.840	.355	.037	.148	.181	.162	.248	.031	.732	.182
진로결정1	.876	.150	.198	.186	.086	.107	.238	.204	.211	.786
진로결정3	.883	.232	.175	.183	.199	.204	.253	.164	.147	.756
진로결정2	.815	.235	.221	.161	.309	.257	.226	.128	.159	.656
Eigen-values	2.828	2.660	2.626	2.572	2.558	2.554	2.528	2.485	2.204	
% of Variance	10.474	9.850	9.727	9.526	9.473	9.460	9.364	9.203	8.163	
Cumulative %	10.474	20.324	30.052	39.578	49.051	58.511	67.875	77.078	85.241	
KMO 및 Bartlett 검정										
Kaiser-Meyer-Olkin 표본적합도									.926	
Bartlett 단위행렬 검정	Approx. Chi-Square								6300.059	
	df								351	
	유의수준								0.000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 결과, 본 연구에서 의도한 9가지 요인(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 정보수집, 계획수립, 자기평가, 목표설정, 문제해결, 진로결정수준)이 적출되었다. 문항들의 표준화 요인적재량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고, 평균분산추출지수(AVE)는 0.5 이상, 개념신뢰도(CR)은 0.7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 계수	S.E.	t	AVE	CR	alpha
타인과의 학습	타인학습3	0.903			0.733	0.892	0.914
	타인학습2	0.909	0.045	22.421			
	타인학습1	0.843	0.053	19.349			
자기성찰	자기성찰3	0.896			0.811	0.928	0.926
	자기성찰2	0.922	0.046	23.123			
	자기성찰1	0.884	0.051	21.266			
외부탐색	외부탐색3	0.906			0.620	0.830	0.889
	외부탐색2	0.793	0.069	13.104			
	외부탐색1	0.792	0.069	13.068			
정보수집	정보수집3	0.849			0.707	0.879	0.904
	정보수집2	0.894	0.057	18.786			
	정보수집1	0.867	0.060	17.952			

계획수립	계획수립3	0.887			0.688	0.869	0.905
	계획수립2	0.865	0.049	19.132			
	계획수립1	0.865	0.053	19.142			
자기평가	자기평가3	0.852			0.766	0.907	0.914
	자기평가2	0.921	0.052	20.271			
	자기평가1	0.883	0.059	19.069			
목표설정	목표설정3	0.896			0.741	0.895	0.912
	목표설정2	0.896	0.049	21.008			
	목표설정1	0.849	0.050	19.092			
문제해결	문제해결3	0.885			0.644	0.844	0.892
	문제해결2	0.864	0.058	18.085			
	문제해결1	0.819	0.061	16.752			
진로결정 수준	진로결정3	0.917			0.703	0.877	0.906
	진로결정2	0.859	0.046	20.234			
	진로결정1	0.850	0.049	19.812			

주) Model Fit : CMIN/DF=1.31, RMR=.041, GFI=.909, NFI=.943, CFI=.986, RMSEA=.034

다음으로 구성개념 간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지수의 제공근과 각 개념 간 상관계수를 비교하였다. <표 5>와 같이 구성개념의 평균분산추출지수의 제공근이 세로축과 가로축의 상관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Fornell and Larcker, 1981).

<표 5> 판별타당성 결과

	1	2	3	4	5	6	7	8	9
1. 타인과의학습	.856								
2. 자기성찰	.294**	.901							
3. 외부탐색	.452**	.377**	.787						
4. 정보수집	.692**	.400**	.476**	.841					
5. 계획수립	.655**	.412**	.492**	.589**	.829				
6. 자기평가	.364**	.685**	.375**	.491**	.490**	.875			
7. 목표수립	.417**	.571**	.478**	.448**	.493**	.564**	.861		
8. 문제해결	.421**	.318**	.414**	.383**	.415**	.308**	.460**	.802	
9. 진로결정수준	.532**	.541**	.507**	.565**	.574**	.553**	.643**	.498**	.839

주) 각 대각선의 진하게 처리된 값은 AVE 제공근

** p<0.01

마지막으로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여 구성개념의 신뢰성을 살펴보았다.

<표 4>에 명시한 것과 같이 9개의 개념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3 가설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한 통계적 검정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실시하였다. 먼저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CMIN/DF=1.363(\leq 3)$, $GFI=0.902(\geq 0.9)$, $RMR=0.046(\leq 0.05)$, $RMSEA=0.037(\leq 0.05)$, $NFI=0.939(\geq 0.9)$, $CFI=0.983(\geq 0.9)$ 으로 각각의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구조적 인과관계를 추정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총 20개로 경로별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설 1은 무형식학습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로 총 15개의 가설 중 9개가 채택되고, 6개가 기각되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형식학습의 하위요인에 따라 가설 1-1부터 1-5까지는 타인과의 학습, 가설 1-6에서 1-10까지는 자기성찰, 가설 1-11부터 1-15까지는 외부탐색과 관련되어 있다. 타인과의 학습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정보수집($\beta=0.511$, $t=5.553$)과 계획수립($\beta=0.354$, $t=3.338$)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평가($\beta=-0.023$, $t=-0.239$), 목표수립($\beta=-0.127$, $t=-0.929$) 및 문제해결($\beta=0.016$, $t=0.115$)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 1-2는 채택되고, 가설 1-3, 1-4, 1-5는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자기성찰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평가($\beta=0.535$, $t=6.808$)와 목표수립($\beta=0.231$, $t=2.192$)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수집($\beta=-0.090$, $t=1.256$), 계획수립($\beta=0.039$, $t=0.472$) 및 문제해결($\beta=-0.036$, $t=-0.332$)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8, 1-9는 채택되고, 가설 1-6, 1-7, 1-10은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외부탐색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평가($\beta=0.307$, $t=2.533$), 목표수립($\beta=0.498$, $t=3.394$), 정보수집($\beta=0.355$, $t=2.769$), 계획수립($\beta=0.715$, $t=3.666$) 및 문제해결($\beta=0.645$, $t=0.398$)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1, 1-12, 1-13, 1-14, 1-15는 채택되었다.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무형식학습의 외부탐색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목표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2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로 채택되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평가($\beta=0.204$, $t=3.132$), 목표수립($\beta=0.159$, $t=2.335$), 정보수집($\beta=0.148$, $t=2.551$), 계획수립($\beta=0.341$, $t=5.259$)

및 문제해결($\beta=0.164$, $t=2.946$)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 2-2, 2-3, 2-4, 2-5는 채택되었다. 영향력의 크기로 보았을 때, 5개 요인 중 목표수립이 진로결정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가설검정 결과 요약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t	p	결과
H1-1	타인과의학습 → 정보수집	0.524	0.511	5.553	***	채택
H1-2	타인과의학습 → 계획수립	0.387	0.354	3.338	***	채택
H1-3	타인과의학습 → 자기평가	-0.02	-0.023	-0.239	0.811	기각
H1-4	타인과의학습 → 목표수립	-0.125	-0.127	-0.929	0.353	기각
H1-5	타인과의학습 → 문제해결	0.016	0.016	0.115	0.909	기각
H1-6	자기성찰 → 정보수집	0.108	0.09	1.256	0.209	기각
H1-7	자기성찰 → 계획수립	0.05	0.039	0.472	0.637	기각
H1-8	자기성찰 → 자기평가	0.553	0.535	6.808	***	채택
H1-9	자기성찰 → 목표수립	0.263	0.231	2.192	0.028*	채택
H1-10	자기성찰 → 문제해결	-0.043	-0.036	-0.332	0.74	기각
H1-11	외부탐색 → 정보수집	0.416	0.307	2.533	0.011*	채택
H1-12	외부탐색 → 계획수립	0.719	0.498	3.394	***	채택
H1-13	외부탐색 → 자기평가	0.417	0.355	2.769	0.006**	채택
H1-14	외부탐색 → 목표수립	0.925	0.715	3.666	***	채택
H1-15	외부탐색 → 문제해결	0.883	0.645	3.398	***	채택
H2-1	정보수집 → 진로결정수준	0.206	0.204	3.132	0.002**	채택
H2-2	계획수립 → 진로결정수준	0.151	0.159	2.335	0.020*	채택
H2-3	자기평가 → 진로결정수준	0.173	0.148	2.551	0.011*	채택
H2-4	목표수립 → 진로결정수준	0.361	0.341	5.259	***	채택
H2-5	문제해결 → 진로결정수준	0.164	0.164	2.946	0.003**	채택

*** $p<0.001$, ** $p<0.01$, * $p<0.05$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전공 대학생의 무형식학습,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

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272명의 표본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무형식학습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첫째, 무형식학습의 하위요인인 타인과의 학습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정보수집과 계획수립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형식학습의 하위요인 중 자기성찰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와 목표수립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형식학습의 하위요인인 외부탐색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정보수집, 계획수립, 자기평가, 목표수립 및 문제해결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 계획수립, 자기평가, 목표수립 및 문제해결은 모두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식학습의 하위요인인 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요인에 따른 차별적인 교육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타인과의 학습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정보수집과 계획수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성찰은 자기평가와 목표수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탐색은 정보수집, 계획수립, 자기평가, 목표수립 및 문제해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정보수집과 계획수립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학습과 외부탐색 기회의 빈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과에서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취업한 선배와의 만남, 취업 간담회, 취업 동아리 등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평가와 목표수립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성찰과 외부탐색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의 학습 및 시행착오 경험을 되돌아보고 이를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 조언이 가능한 전문가를 섭외하여 특강을 진행한다면 적절한 안내 속에서 자기성찰과 외부탐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은 외부탐색만이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 및 지식 습득을 위해 인터넷, 서적, 전문가 만남 등 다양한 탐색 창구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과 관련된 전공의 학과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다양한 채널의 무형식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을 활용한 전문가 및 자격증 특강, 선배와의 담화, 취업세미나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둘째, 진로결정수준 높이기 위해서 다차원으로 구성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자원의 제약

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목표수립과 정보수집을 먼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과나 대학 차원에서는 진로에 대한 학생의 목표수립이 적절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같이 고민하고, 취업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서비스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형식학습,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서비스분야의 인력양성과 관련된 연구의 범위를 넓히는데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표준화된 교육이 아닌 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무형식학습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이렇게 높아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무형식학습의 중요성을 입증하였기에 의미가 있다.

이상의 실무적·학문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비스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 세부 전공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서비스업으로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세부 전공별로 가지는 특성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서비스업 분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다면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진로에 대한 탐색 및 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함에 있어 학년에 따른 차이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김현순(2018)은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진로를 결정할 확률이 2배 이상 커짐을 보여줬고, 나태균과 정양식(2011)은 학년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해 학년에 따른 차이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영주, 김남석 (2020).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디지털융합연구*, 18(4), 301-308.
- 김수연, 이희수 (2020). 호텔 구성원의 무형식학습이 주도적 경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민첩성과 경력적응성의 매개효과, *관광경영연구*, 97, 481-508.
- 김수을 (2016).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2(2), 210-219.
- 김정혜 (2019). 대학 커리어 컨설턴트의 역량에 대한 요구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2014). 대학생 진로발달에 있어서 인턴십 프로그램 경험의 학습적 의미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7(4), 41-70.
- 김현순 (2018). 대학생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2), 251-262.
- 나태균, 정양식 (2011). 외식조리 관련 전공자의 학년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분석 - 충청도에 위치한 대학교를 중심으로 -,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17(4), 238-250.
- 리쿠르트타임스 (2020). 4년제 대졸자 59% '휴학·졸업유예 해봤다', 2020.02.10., <http://www.recruit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227>
- 매일경제 (2020). 대학생 46.9% "아직 진로 결정 못했다", 2020.10.19.,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69352/>
- 민소라, 김영택, 이슬기 (2019).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평생교육 · HRD연구*, 15(3), 1-23.
- 민소라, 홍성훈 (2019).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의 전공 선택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5), 141-161.
- 박만희 (2017). 항공사 승무원의 무형식학습 활동, 자기효능감 및 적응성과 간의 관계, *관광경영연구*, 21(3), 79-98.
- 박완성, 임영미 (2019). 대학생의 우연대처기술,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32(4), 211-226.
- 백수진, 안성우 (2020).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3), 157-181.
- 성행남, 김은정, 이태원 (2021). 대학의 교육서비스품질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입생과 재학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지식경영연구, 22(2), 189-208.
- 신윤미, 오미자 (2021). 대학생의 자기주도성, 대학몰입, 비교과 만족이 진로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205-216.
- 신은경 (2012). 기업 내 무형식학습의 구성요소, 결과, 학습전이동기 간의 구조적 관계, *HRD연구*, 14(3), 25-59.
- 신주은, 오석영 (2018). 대학생의 진로학습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문화포럼*, 63-92.
- 심지영 (2016). 중등학교장의 임파워링 리더십, 학교의 조직혁신풍토, 그리고 교사의 조직몰입, 무형식학습, 혁신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오석영 (2011). 학력 간 학습 형태가 숙련향상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조업 생산직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27-52.
- 오현석, 박현정, 심한식, 최지영 (2006). 인적자원경쟁력 평가 모형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
- 오혜지 (2019). 조리·외식 전공 대학생의 진로개발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호텔리조트연구*, 18(4), 465-482.
- 윤일현 (2021). 코로나 19 시대의 대학생 진로장벽이 취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의 병렬매개효과와 매개된 조절효과, *융합정보논문지*, 11(5), 130-137.
- 윤정혜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고용가능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5(2), 29-46.
- 이민옥 (2018). 전문대학생이 인식한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이수진, 김하나, 김봉환 (2021). 대학생 진로미결정 관련변인에 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취업진로연구*, 11(2), 59-80.
- 이순구 (2021).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온라인 학습자의 스트레스와 만족에 관한 연구-서비스분야 전공학생을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20(1), 295-309.
- 이윤하 (2010). 활동이론에 대한 일터 무형식학습 뿌리내림.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이한나, 안선주, 최정일 (2019). 교육서비스품질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20(1), 155-175.
- 이향림, 최응용 (2020).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819-849.
- 임민숙, 이상민 (2020).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전공선택동기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1(5), 71-84.

- 정봉희, 오지현 (2021). 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직업가치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비서학 전공 전문대학생을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11(2), 131-152.
- 정헌배, 이현우, 이현경 (2019). 대학생 창업교육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관계에 관한 연구: 무형식학습 경험의 조절효과, *한국창업학회지*, 14(6), 138-159.
- 최지은, 조용선 (2019). 현직자 직무 멘토링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 581-601.
- 한국교육개발원 (2018). 2018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자료집. SM2018-06.
- 한희원, 문경숙 (2020). 대학생의 학업정서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1127-1155.
- 홍유진 (2019). 성인초기 무형식학습활동이 평생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 지역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 황영훈 (2017). 대기업 영업직 초기경력자의 형식학습, 무형식학습, 조직사회화 및 이직의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etz, N. E., Klein, K. L. and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Choi, W. (2009). Influences of formal learning,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work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n informal learning among middle managers in the Korean banking sector,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Monterey, CA: McGraw Hill.
- Fornell, C. and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Knowles, M. S. (1950). *Informal adult education: a guide for administrators, leaders, and teachers*. Association Press.
- Lent, R. W. and Brown, S. D. (2013).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daptive caree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4), 557-568.
- Lent, R. W., Brown, S. D. and Hackett, G. (2002).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1), 255-311.

- Marsick, V. J. and Watkins, K. (1990). *Informal and Incidental Learning in the Workplace*, London and New York:Routledge.
- Marsick, V. J. and Watkins, K. E. (2001). Informal and incidental learning,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89, 25-34.
- Mocker, D. W. and Spear, G. E. (1982). Lifelong Learning: Formal, Nonformal, Informal, and Self-Directed. Information Series No. 241.
- Storme, M., Celik, P. and Myszkowski, N. (2019). Career decision ambiguity tolera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in a French sample: The mediating role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7(2), 273-288.
- Taylor, K. M. and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Tolbert, E. L. (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Wanberg, C. R. and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71-80.

* 저자소개

· 조 정 형(gom311@osan.ac.kr)

승실대학교에서 교육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오산대학교 마케팅경영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서비스경영, 평생교육 등이다.